

김홍재 목사 STP 12기

나는 목회와 설교 경력 27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가 어렵고 쉽지 않으며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늘 목회하여도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지 않고
늘 설교하여도
설교가 발전되거나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 자신인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인 성도들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대책없는 설교자를...

STP세미나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설교해야하는지를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게 되었고
어떻게 고치고
계발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STP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와 설교자의 삶으로
완전히 대박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